"포스트코로나 관광수요 전북으로 모으자"

전북도, 시-군 · 관광재단 ·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업 나서… 각 기관별 관광정책 공유 실효성 높이기 위한 협력 다짐

전북도는 포스트코로나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내 시·군, 관광재단 등과 협업에 나서는 것은 물론 관광단체·기업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20일 전주 로니호텔에서 도내 관광 분야를 책임지는 도, 시·군, 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19개 기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시군-문화관광재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협조 및 홍보사항,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발전방안 토의,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 참석 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담당분야 중점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의 2023년도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 기관별 2023년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공유를 비롯해 협조사항 등을 주고 받으며 관광트렌드 변화 등에 걸맞은 전북관광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토의를 펼쳤다.

도는 이 자리에서 도정 목표인 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2023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워케이션 활성화, 시군 지역축제 역량강화, 치유관광산업 육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후속사업 발굴,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마이스산업 육성환경 조성 등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023년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과 고창은 인접 시·군과의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공동 마케팅을 통해 도내 방문 관광객이 연계 방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는 14개 시·군의 관광안내와 정보 제공, 무료 짐보관, 굿즈 매장, 쉼터 운영 등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북 쇼핑 트래블 라운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트래블라운지 활용 시군의 관광정보 안내와 관광기념품 판매 협조를 요청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라북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과 문화관광재단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각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전북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선"

전북신용보증재단 제11대 한종관 이사장 임명

전북도는 2025년 2월 19일까지 2년간 전북도신용보증재단을 책임질 이사장에 한종관(65)씨를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한종관 이사장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전북대학교 회계학 박사를 취득한 중소기업 금융전문가다.

한 이사장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행원부터 전무까지 30여년간 근무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보증공급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 프로그램 도입,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창업에 도움을 주는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종관 이사장은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며, "신용보증, 재단의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등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 만들기' … 도, 2월 소통의 날 행사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강의 진행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필수"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월 소통의 날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명사 특강에 초대된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및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2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 만들기를 위한 준비에 직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20일 '2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 지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장을 통해 우리 한류의 힘도 확인했고, 또 우리 전북도의 미래 잠재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동남아 방문 의미에 대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요즘 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례를 발굴하느라 실국별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국별로 토론하고 많은 분이 힘써주셔서 현재 약 300여 개의 과제가 제출되어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특례들을 잘 발굴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우리 도민들과 부딪히고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우리 청원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하기에 청원들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특례발굴에 직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이시종 전 충청북도지사가 강사로 나서 "위기 속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그 해법은?"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이 전 지사는 "최근 신중앙집권주의 강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장(長)만 주민이 직접 선출할 뿐, 그 권한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영원한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최후 보루인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필수다"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개헌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하수도시설 확충 예산 조기집행 추진

전북지방환경청, 14개 시군과 간담회… 실집행률 제고방안 논의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하수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전북지역 14개 시·군을 대상 21~24일까지 '전북지역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4개 시·군별로 지원될 예산집행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내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방안을 공유, 안내해 신속한 예산집행과 실집행률 향상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북환경청이 전북도내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하수도국고보조 예산 규모는 182개 사업, 총 2,100억원(국비 기준)으로, 하수도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신·증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교체·개량,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등이 주요 사업이다.

시·군별 지원액은 부안군 271억 원(12.9%), 익산시 258억 원(12.3%), 군산시 254억 원(12.1%), 전주시 226억 원(10.8%), 고창군 182억 원(8.7%), 김제시 172억 원(8.2%), 순창군 132억 원(6.3%) 순이다.

소병훈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추진과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수시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아록 기자

농진청 - 세계은행, 글로벌 학습과정 개발

우리나라 디지털 기반, 농경지 비옥도 관리기술 전 세계 전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세계은행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기반(플랫폼) '오픈러닝캠퍼스(https://olc.worldbank.org)'를 통해 우리나라의 앞선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 OLC)란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학습 및 개발지식과 경험 공유를 위한 세계은행 플랫폼을 뜻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당시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두 기관이 공동 개발한 세계적 학습 과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토양조사, 토양환경 정보시스템, 토양진단·양분관리 등 총 8차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2월 초부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아 · 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장 시설 안전점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3개월여 앞두고 경기장 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20일 조직위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장 환경 조성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경기 관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14개 시군 및 도내 종목단체와 함께 42개소 경기장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42개소 경기장의 안전등급 현황 조사 결과 A등급을 받은 시설이 4개소, B등급을 받은 시설이 16개소, C등급을 받은 시설이 4개소, 그리고 나머지 18개소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경기장에서 D등급을 받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꼼꼼하게 경기장 시설물을 점검했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 전북대와 도문의 면접 담당교수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음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와 심미당, MBC TV, JTV, TBN등 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울 말, 말, 말" "스피치 소화2" 등
- 스피치지도사, 평생교육사, 사당장지도사등 자격증 소유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